

한·일 中企, AX·생산성 해법 모색... 경제협력 확대 나선다

중기중앙회·日 중양회 2차 포럼 개최
제값받기·생산성 제고 해법 논의
日, '100억엔 선언' 기업투자 지원
내년 1억·10억엔 기업 지원 확대
시장 진출·AI 등 4대 협력 제시
김기문 회장 "양국 교류 확대할 것"

중소기업만 335만개가 훌쩍 넘는 일본도 제값받기, 노동생산성 제고, 인공지능 전환(AX)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 향상, 기업승계 등이 최대 화두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속제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계가 '셔틀교류'를 통해 협력을 넓히고 중소기업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함께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한·일 중소기업 경제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말 일본 도쿄에서 1차 포럼을 공동 개최하며 양국 중소기업계간 협력의 물꼬를 튼 바 있다.

올해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는 한국 측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일본에선 모리 히로시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한·일 중소기업 경제 포럼'에서 (왼쪽 3번째부터)노용석 중기부 1차관, 모리 히로시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 추조 카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도도부현 중기단체중앙회장 및 기업인과 중소기업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일본 (2021년 기준)의 경우 중소기업 숫자는 336만4891개로 전체 기업의 99.7%에 이른다. 이들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70%를 담당하고 부가가치액은 전체의 56%로 과반을 넘어 일본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9%, 전체 고용의 8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일본 중소기업청 사에키 노리히코 경영지원과장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정책의 우선과제는 임

금인상을 견딜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장기간 지속된 디플레이션 상황을 고려, 새롭게 성장에 도전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새로운 매커니즘 구축과 수익 창출 역량 강화 관점에서 가격전가, M&A와 사업승계, AX·디지털화, 동행지원 및 경영역량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매출 '100억엔 선언'을 한 기업에게 각 사당 5억엔(약 42억원)의 설비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추가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000개 기업이 '100억엔 선언'에 동참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1억엔

기업', '10억엔 기업'도 추가해 성장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또다른 발표자로 나선 중소벤처기업부 삼재운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양국의 강점을 살린 한·일 중소기업간 4대 협력 분야로 ▲유통망·플랫폼·B2B 네트워크 연결 등 상호 시장 진출 ▲스타트업과 기술 분야에서 AI·제조·뷰티테크 기업·투자자 연계 ▲시장·규제정보 공유를 통한 규제·인증 등 진입비용 완화 ▲지역 클러스터·지원기관 간 교류 확대 등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날 포럼에선 오일·가스, 석유화학 플랜트용 필터 등을 제조하는 합작회사인 후지필터코리아 후세 히라쿠부

사장이 일본의 품질 관리와 한국의 생산성 등 강점을 결합한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사례, LG CNS 홍진현 상무가 중소기업 AX 사례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모델을 각각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일 양국 중소기업은 각국 경제와 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만나 현장의 고민과 해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양국 중소기업이 기술과 경험,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양국의 최대 중소기업 단체간 교류 확대는 업종별 협동조합 및 개별 중소기업 간 실질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레미콘, 제빵, 자동차부품 등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후속 교류가 펼쳐지면서다.

노용석 제1차관은 "정부 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과 사람 간의 지속적인 만남은 한일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포럼이 양국 중소기업이 서로의 시장과 산업을 이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금호석화, 고부가·친환경 소재로 불황 돌파

전기차용 SSBR 생산능력 확대
재활용 ABS로 탄소배출 저감
무음극 리튬메탈 배터리 개발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연구개발(R&D)을 통해 석유화학 업황 부진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에 대응해 고부가·친환경 소재의 비중을 높이고 차세대 배터리 등 신규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전기차용 합성고무와 바이오 원료 기반 소재 개발을 확대하고 탄소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공정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고기능성 합성고무인 솔루션스티렌부타디엔고무(SSBR)를 중심으로 전기차용 타이어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SSBR은 타이어의 내구성과 연비, 마모 성능을 개선하는 소재로, 무거운 차체와 잦은 가·감속으로 타이어 부담이 큰 전기차에 활용된다. 지난해 연간 3만5000톤 규모의 증설을 완료하고 상업 기동을 시작해 공급 능력도 늘렸다.

자동차 내장재 분야에서는 폐가전에서 회수한 재활용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을 고사양 소재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내열성과 충격강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관련 자동차용 기준을 충족하면서 탄소배출을 약 16%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합성고무·합성수지 사업에서 확보한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비아이이(BEI)와 무음극 리튬메탈 배

터리를 개발하며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과 금호미쓰이화학은 환경 규제와 고객 산업의 수요 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소재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VOC 배출을 줄이는 수용성 에폭시 제품을 개발·상용화하고, 석유 기반 원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바이오 기반 저탄소 에폭시 기술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제품의 생산·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 함유 폴리우레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소재 수요에 맞춰 자동차 시트용 경량화 제품과 고성능 흡음재용 폴리우레탄으로 개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3만원 결제하면 3000만원 당첨 기회"

디지털온누리 상생소비복권 15일 시작
비수도권 결제 시 응모권 2배 지급

15일 오전 9시부터 한 달간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같은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온누리로 3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최대 3000만원의 디지털온누리를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15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온누리 누적 결제액 3만원당 상생소비복권 응모권을 수도권에서는 1장, 비수도권에서는 2장을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생소비복권은 오는 29일부터 18일간 열리는 국가 단위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흥행을 위해 마련된 사전 이벤트다. 올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

벌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최대 소비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제조·유통·서비스 업계와 소상공인 약 4만곳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전망이다.

상생소비복권 응모권은 최대 30장(수도권 10장·비수도권 20장)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소비 장소에 따라 지급한다. 특히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결제에 수도권보다 2배 많은 응모 기회를 부여한다. 수도권에서 10만원, 비수도권에서 20만원을 사용했다면 수도권 3장, 비수도권 12장 등 총 15장의 응모권이 지급된다.

디지털온누리 앱에 접속해 이벤트 참여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참여일자 상관없이 행사 기간 내 결제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응모권이 자동 발급된다.

/김승호 기자

LS마린솔루션, 말레이시아 해저케이블 시공 착수

대만 이어 두 번째 해외 전력사업
7000톤급 포설선 GL2030 투입

LS마린솔루션이 대만에 이어 두 번째 해외 전력 프로젝트인 말레이시아 해저케이블 시공에 착수하며 해외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LS마린솔루션은 강원도 동해항에서 말레이시아 랑카위 프로젝트에 사용될 해저케이블을 포설선 GL2030에 선적한다고 14일 밝혔다.

GL2030은 말레이시아로 이동해 연내 포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LS전선이 말레이시아 전력공사(TNB)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본토와 랑카위섬을 132kV급 해저케이블로 연결하



LS마린솔루션의 해저케이블 포설선 GL2030이 강원도 동해항에서 말레이시아 랑카위 프로젝트에 투입될 해저케이블을 선적하고 있다. /LS마린솔루션

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GL2030이 4000톤급에서 7000톤급으로 확대 개조된 이후 처

음 투입되는 사업이다. 적재 용량 확대로 100km 이상의 해저케이블을 연속 포설할 수 있게 되면서 장거리·대용량 프로젝트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랑카위 사업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TPC2)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전력 프로젝트다. 최근에는 신안우이 해저케이블 구축 사업을 1569억원에 수주하며 수주잔고를 약 820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지난해 연간 매출 2442억원의 3배를 웃도는 규모다.

GL2030 투입으로 보유 선박 3척도 모두 가동된다. 나머지 선박 2척은 각각 대만과 태평양 지역의 해저케이블 시공 및 유지보수 사업에 투입돼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中企 R&D 사업화에 3400억 보증 지원

기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약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연구개발(R&D) 성과사업화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의 신용회복과 제도전을 돕기 위한 포용금융도 확대한다. 14일 기보에 따르면 전남 부산 본점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공공기술 기반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특구육성 및 기술사업화 관련 과제정보 공유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연계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 연계 ▲사업화 성공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부터 기술이전, 사업화, 성장으로 이어지는 R&D 사업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보는 새롭게 도입한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과 'R&D사업화 유동화보증'을 통해 정부 R&D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올해 총 34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권형택 이사장은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수한 R&D 성과가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화 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